

Vol.3
2021년 6월 반년간

제주바투리

제주바투리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바탕인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의 근원을 탐구하는 제주학연구센터의 기관지입니다.



제주바투리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

제주바두리

《제주바두리》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바탕인 제주의 인문 사회 자연의 근원을
탐구하는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입니다.

Vol.3

2021년 6월 반년간지



김기삼 作 제주시 도련1동 4·3위령제(2021년 4월 2일)

사진작가 김기삼 씨는 제주인의 삶과 기억을 사진에 담아왔다. 특히 제주국과 4·3진상규명운동 현장을 발로 뛰며 기록해왔다. 저서로 《달 보며 하영 울었주》, 《다랑쉬굴의 슬픈 노래》, 《사진으로 보는 4·3진상규명운동》, 《동북마을 본향당굿》 등을 펴냈다.

고유제문

강덕환*

유세차 신축년 사월
한라산이 굽어 살피는 이곳 위령제단에서
부복하여 삼가 향을 사르웁니다.
들녘에서, 골짜기에서, 백사장에서, 육지형무소에서
희생되신 술한 43영령들이시여!
제주43이 발발한 지 올해로 일흔 세 해입니다.
살은 녹고 뼈는 삭아버린 세월입니다.
이제나 오카, 저제나 오카
올레 어귀를 감돌아오던 바람소리에도
버선발로 뛰쳐나가던 청원한 세월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령들께 덧씌워진 빨갱이라는 낙인이
저희들에게까지 꼬리표로 남아
연좌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얼마나 발버둥을 쳐야 했습니까.
그 세월을 이겨낸 우리 후손들에게
‘4·3특별법 개정’이라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수형인들에게도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순탄하진 않겠지만
오늘 하루쯤 목 놓아 울어도
너무 나무라진 마시옵소서.
그 사연을 누구보다 먼저 영령들 앞에 아뢰고자
정성으로 제물을 진설하여 옷깃을 여밍니다.
그러니, 영령들이시여!
한세상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삼태기만한 봉분 하나 마련해드리지 못한
미욕한 후손들의 눈물을 이제랑 닦아 주십서.
이승과 저승 사이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여
바람길, 구름길에 떠돌던 서러운 영혼들이시여!
그동안 맺혔던 분노와 증오, 원한과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는 이 땅에서 맑고 고운 역사로만 채워 주십서.
거듭 바라옵건대, 저희들이 가는 길이 비록 서툴어도
정의와 평화가 넘실대게 두루두루 보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웁니다.
상향

*사인.
시집 《생말타기》, 《그해 겨울은 춥기도 하였네》 등. 공저 《제주43유적지기행-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43문학지도 1.Ⅱ》 등을 펴냈다. 현재 제주작가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제주바투리** 3호(반년간)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발행인 김순자

편집위원 조정현, 김미진, 김선희, 임승희, 고은솔

디자인 · 인쇄 도서출판 각(064-725-4410)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이도1동)

전화 064-726-5623 팩스 064-747-6140 누리집 www.jst.re.kr



02 **열린 창** 김기삼·강덕환

06 **발행인의 글** 김순자

08 **제주학연구센터에 바란다** 안창남

제주학 톺아보기

10 **제주 영등굿** 강소전

13 **승정원 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 사업의 의의** 홍기표

16 **신축교안 120주년, 화해와 상생의 모범 사례** 김선희

특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제주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20 **기조 강연_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제주지역 공동체 현실과 과제** 고승한

22 **주제 발표 1_코로나19와 제주지역 가족의 변화** 손태주

24 **주제 발표 2_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주민 · 다문화 · 외국인공동체** 황석규

26 **종합 토론_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공동체의 통합과 발전 방향 모색**

제주학 연구 기관 · 단체 탐방

3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전영준

제주학 산책

35 **큰굿보다 영험하다는 보목마을 정포제** 조정현

38 **제주어, 궁금해?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김미진

41 **제주 유배 문화의 가치 탐색** 김진철

43 **위미2리 해녀들의 신앙 의례** 고은솔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 동향

46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현황**

53 **제주학 동향**



표지 그림

홍진숙 作 이여도(60×45cm, 2013)

한라산을 등에 지고 바다를 마주한 섬사람들은 '이여도사나' 노래를 부르며 유토피아를 꿈꾸었다. 미지의 땅, 이여도는 우리들 마음 속에서 새로운 상상을 만들어낸다. 바다, 섬, 땅, 하늘을...

홍진숙 세종대학교 회화과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판화과를 졸업. 17회의 개인전(제주/서울/일본)을 열었다. 판화, 회화, 그림책 작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프랑스, 대만, 일본, 서울, 인천, 제주에서 '대만-한국 국제교류전', '신화의 기억을 나누다', '국제인천여성비엔날레', '꿈꾸는 신화의 섬', 'COREELATION III'(Maisondesarts / evaeux France)등 다수의 단체전 참가.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제주학 집’ 공고히 해 나갈 터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제주바투리》를 창간한 일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새 3호를 냅니다.

지난해 기관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센터가 걸어온 9년의 성과들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눈에 띄었지만 차곡차곡 쌓인 성과들이 제주학 연구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니 센터 일원으로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센터가 걸어온 지난 10년의 성과를 잘 꿰어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주춧돌로 삼고자 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오는 8월 12일이면 설립 10주년을 맞습니다. 묵묵히 쌓아온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투리(바탕)’로 삼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의 모습을 담아낼 ‘제주학’ 집을 튼실하게 짓고자 합니다. 10월에 열릴 예정인 ‘제5회 제주학대회’를 통하여 경향 각지의 지역학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어, 독립 채비를 하고 있는 우리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여 ‘제주학 집’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도민 사회, 연구자와 관련 기관·단체와 더욱 소통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을 개편하고, 《제주바투리》 발간,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개통한 것도 제주학으로 대내외로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들입니다.

제주학 정립을 위해서는 제주학 연구자는 물론이요 제주학 관련 기관과 단체 등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주평생장학진흥원과 손잡고 제주학 진흥을 위하여 ‘찾아가는 제주학 교육 사업’으로 ‘제주신화학교’와 ‘제주인물사’ 강의를 여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또 지난 4월 9일 진행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와 공동으로 진행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 공동체’ 제주학 공동 정책 세미나>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발맞춘 매우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그 의미를 곱씹기 위하여 이날 세미나의 기조 강연, 주제 발표, 토론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해 《제주바투리》3호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이번 호에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귀한 그림 ‘이어도’를 표지화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신 화가 홍진숙 님, ‘열린 창’에 ‘4·3특별법 개정’이라는 뜻깊은 해를 기념하는 위령제 사진을 보내 주신 사진작가 김기삼 님과 여는 시 ‘고유제문’을 써 주신 강덕환 시인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은 ‘제주학연구센터에 바란다’의 코너를 통해 장차 제주학연구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안 위원장님의 고견처럼 우리 센터는 “제주의 역사적 가치를 밝혀내는 중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제주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고마움을 대신합니다.

‘제주학 톺아보기’, ‘제주학 연구기관·단체 탐방’, ‘제주학 산책’에 귀한 원고를 주신 강소전·홍기표·전영준·김진철 님과 우리 센터 연구진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책 편집에 애쓰신 도서출판 각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주바투리》는 제주학연구센터의 성과를 공유하는 집이자 제주학 관련 기관과 단체, 연구진, 도민들과 소통하는 매체입니다. 《제주바투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 사회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열린 자세로 따뜻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제주바투리**

“제주의 정체성을 정립시킬 제주학연구센터로 거듭나길”

지난해 6월 탐라역사문화권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금까지 제주 즉, ‘탐라’는 우리만의 이야기였지 우리나라 지역사에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였다. 이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탐라는 우리나라의 역사로서 당연히 규명되어야 할 사실로 조명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주근현대사는 중앙정치사와 연계되어 어느 정도 기록, 사진, 유적 등 다양하게 남아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제주는 고려, 조선시대 정계의 중심에 있던 문중들이 있어 정치적 사회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며, 오랜 시간 연계된 학문의 계보를 정립한 일도 없었다. 더군다나 별도의 탐라국을 증명해 줄만한 ‘탐라사’라는 정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절해고도(絶海孤島)의 변방지역으로서 중앙의 관심이 크게 작용하지 않던 곳이었다.

오롯이 매장문화에서 보여준 역사의 흔적이거나, 제주에 유배 혹은 목민관으로 왔다가 제주의 신비스런 풍경과 기이한 풍속을 기록해 놓은 몇몇 문집과 중앙사에서 간간이 보여준 변방의 백성이란 과거의 존재가 역사로 파악되었다.

역사를 정설로 인정해줄 수 있는 조건은 기록과 유적이다. 하지만 제주의 열악한 역사문화기록을 찾아내고 채울 수 있었던 곳이 제주학연구센터 이전에는 마땅치 않았다. 대학에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거나,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간간히 연구된 옥고들이 있었을 뿐이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내놓은 성과들을 보면, 과거 산발적으로 흩어진 자료들을 아카이빙하고, 승정원일기 등 정사와 근대 시기의 각종 국내외 신문 등에서 보인 제주 관련 기사들을 수집하여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도내 제주학 관련 학자들에게 연구를 지원하는 등 10년 동안 적지 않은 사업들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제주어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구술 채록을 통해 소멸위기 제주어의 가치와 문화를 전통문화로 재해석해 주고 있고,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중심에 서 있다.



안창남(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제주학연구센터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탐라와 제주의 문화를 정립할만한 제주 관련 자료의 공간이 되어왔다. 결국 다른 지역보다 출발점은 늦었지만 지역 자료를 발굴하여 아카이빙하고, 신진학자들에게 다양한 연구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역할로서 제주학연구센터의 존재 이유가 깊어지고 있다.

이제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된 탐라문화권 사업에서도 제주의 역사적 가치를 밝혀내는 중심 역할에 서 있게 되기를 요구해 본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은 잘 알 것이다. 이것은 지역문화에 대한 학술적 토대가 갖추어져 있을 때 지역문화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논리로 대응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그 문화적 가치가 지역 경제력을 좌우하는 재화로 변하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말하는 역사문화권사업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역사와 전통의 보존과 새로운 조명으로 역사문화가 있는 도시로 정비하여 지역발전의 매개로 삼고,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켜 보자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여기서 제주학연구센터는 그 역할을 선점하여 그려야 한다.

올해 6월 시행령이 제정된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바로 역사문화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탐라역사문화권 기본계획이 마련될 때 그 기초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여 수행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제주학연구센터가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당연하고 기본적인 학술토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이 제주학연구센터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가 발전의 로드맵 속에 진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서 깊은 제주를 사랑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너무 쉽게 변해버린 역사문화 경관의 모습을 아쉬워하며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당당한 역할이 있기를 응원한다. **제주바둑리**

제주도 영등굿

글·사진 강소전(제주대학교 강사)

제주학의 인문사회 분야에서 구비전승과 민속문화에 대한 접근은 일찍 시작되었다. 특히 제주도 무속신앙 연구는 제주학을 건인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무속신앙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제주사람들이 어떻게 화산섬을 일구며 살아왔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형문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속신앙 가운데 제주도의 영등굿에 대해 살펴본다. 영등굿은 비교적 일찍부터 연구되기 시작한 주제이다. 굿과 자연환경, 당굿, 해녀와 어부, 해양신앙, 문화재 지정 등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속신앙이다.

제주의 영등굿

영등굿은 음력 2월 초하루부터 보름 사이에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과정에서 벌이는 굿이다. 영등신은 보통 ‘영등할망’으로 인식된다. 겨울 북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 찾아와 땅과 바다에 풍요를 가져다준다. 영등신이 들어올 때 영등환영제를 지내고, 보름 뒤 영등신이 나갈 때에 맞춰 영등송별제를 지낸다. 현재 전승되는 양상을 보면 영등환영제에 견주어 영등송별제를 더 비중 있게 치르는 편이다. 제주도내에서는 대개 음력 2월 12일경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영등굿이 집중되어 있다.

영등굿과 관련해서는 몇몇 문헌이 전하고 있어 그 역사와 실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6세기 초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연등(然燈)’이 제주도의 영등굿을 뜻하는 것이라고 현용준이 이미 고찰한 바 있다. 영등굿을 하는 마을로 귀덕과 김녕 등지를 적고 있는데, 이는 제주의 서북부와 동북부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이다. 17

세기 초 김상헌의 《남사록》에도 영등굿의 모습이나 영등신의 행적과 관련한 기록이 있다. 즉 영등신의 두골은 제주 동쪽의 어등포(於等浦, 현재 구좌읍 행원리)에 들어가고 수족은 고내, 애월, 명월 등의 포구에 들어갔다고 한다. 따라서 그곳 주민들은 마을에서 쌀을 모아 영등신을 제사하였다는 것이다. 이 기록에서도 제주 동부만이 아니라 고내와 애월, 명월 등 현재의 애월읍과 한림읍 일대 등 제주 서부에서도 영등굿이 활발하게 행해졌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영등굿은 현재 주로 해안마을에서 해녀와 어부의 해상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역할을 한다. 제주도 내 여러 마을에서 비교적 전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영등굿은 사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농업과 어업을 포함한 생업의 풍요를 위해 행해지던 것으로, 본향당의 제일(祭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던 것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그 역할이나 기능이 사라지거나 좁혀져서 오늘날에는 영등굿이 공간적으로는 주로 해안마을에 남아 있고, 내용상으로 해녀와 어부들을 위한 굿으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영등굿은 근래에는 당굿과도 별개로 독자적인 면모를 보여주고도 한다. 또한 지난날의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 점점 마을굿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현재 영등굿은 초감제와 요왕맞이를 중심으로 지드림, 씨드림·씨점, 액막이, 선왕풀이·배방선 등의 주요 제차로 구성된다. 초감제는 여러 신을 청하는 제차로 굿의 전반부를 이룬다. 요왕맞이는 바다를 관장하는 요왕(용왕, 龍王)과 배의 선왕(船王) 등을 맞이하여 기원하는 제차로 굿 후반부의 핵심적 순서이다. 지드림은 흰 한지에 여러 제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 영등굿

물을 조금씩 뜯어 모아 정성스럽게 짠 뒤 요왕신과 수증고혼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바다에 던지는 제차이다. 씨드림은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며 해녀들이 바다 주변을 돌아다니며 좁쌀을 뿌리는 주술적 행위이다. 씨점은 씨가 과연 잘 뿌려져서 해산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쳐서 알아보는 제차이다. 씨드림과 씨점은 생업 공동체가 지향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요소인 썸이다. 액막이는 한해의 운수를 해아리고 액을 막는 순서이다. 선왕풀이와 배방선은 굿을 마무리하면서 선왕을 대접하여 보내는 절차로 작은 모형 배를 실제 바다에 띄워 보낸다.

영등굿은 생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체의 굿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영등굿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 제주에서 바람을 삶 속에서 이해하고 이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제주도민들이 행하는 신앙이자 정신 문화이기도 하다. 더불어 새해 새 봄을 맞아 농업이나 어업 등의 생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신에게 올리는 주민들의 정성된 마음이 집이기도 하다. 영등굿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제주시 한림읍 영등당 영등굿

영등당은 한림읍 일대 한림리, 수원리, 한수리, 대림리 등의 본향당이였다. 현재는 폐당되어 흔적도 남지 않았다. 이 당의 영등굿은 음력 2월 초하루에 영등신을 맞아 들어서 축원하고 신을 즐겁게 놀린 뒤, 그 달의 첫 축일(丑日)에 신을 돌려보낼 때까지 며칠 동안이나 이어지던 마을의 큰굿이었다. 한림읍 일대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 거행되었다. 이 일대는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곳이어서 생산물의 풍요는 물론 해상안전이 중요한 기원사항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각자 양전(糧錢)을 내어 놓아 영등굿의 비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 사업의 의의

홍기표(전 성균관대 사학과 겸임교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영등굿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 영등굿

건입동은 제주시 동북쪽에 있는 해안마을이다. 건들개라는 포구와 용천수인 산지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본래 농업과 어업을 생업으로 하여 살아온 곳이다. 해안 마을이니 해녀의 물질과 어업 활동이 특히 활발하였다.

칠머리당은 건입동의 본향당이다. 제장은 평평하고 비교적 넓은 편이며, 위패로 삼은 세 개의 바위를 세워 놓고 돌담을 두른 것 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다.

당신은 도원수감찰지방관과 요왕해신부인이다. 당신본풀이에 의하면 도원수감찰지방관은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 천하명장으로 나라의 병난(兵亂)을 해결하는 공을 세운다. 나중에 용왕국에 들어가 요왕해신부인과 혼인하고 제주로 들어와 칠머리당의 신으로 좌정하였다고 한다. 도원수감찰지방관은 마을 주민들의 삶과 생업 등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요왕해신부인은 해녀와 어부, 타지에 나가 사는 자손들을 맡아 수호한다. 한편 여기에 더하여 영등대왕과 해신선왕, 남당하르방과 남당할망을 모신다. 이들 역시 바다와 관련한 신이다.

당의 제일은 음력 2월 초하루와 14일이다. 초하루에는 영등환영제를 하고, 14일에는 영등송별제를 한다. 현재 영등환영제는 제주시 수협어판장에서 작은 규모로 하며 반나절 정도 시간에 마친다. 무속식 영등굿을 하는 중간에 유교식 풍어제도 함께 치른다. 이에 견주어 영등송별제는 당에서 큰 규모로 한다. 영등굿의 여러 제차를 하루 종일에 걸쳐 진행한다. 칠머리당 영등굿은 지난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되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현재 제주의 영등굿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례이다. **제주바둑리**

용으로 삼았다. 양전은 영등신이 들어오는 날에 작은 양푼에다 보리쌀이나 좁쌀 등을 넣고, 그 위에 흰쌀 한 사발과 돈을 엮어 놓은 것을 말한다. 양전을 자기 집 대문 앞이나 길 옆에 내어 놓으면 심방이 그것을 거두어 간다. 그 쌀의 양이 많을 때는 8~9가마니가 되었다고 하니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짐작할 수 있다. 모은 쌀은 굿의 제물이자 심방들의 식량이었다. 양전을 거두러 다닐 때 주민들은 바람의 풍향과 세기 정도나 농사의 풍흉을 묻고, 심방은 굿을 통해 점을 쳐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주었다.

영등굿은 초감제와 요왕맞이를 중심으로 해서 축일에 배를 띄워 보내는 배방선을 할 때까지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 춤추고 노는 곳이었다. 굿을 할 때는 당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찾아왔다고 한다. 예전에는 팽나무 옆쪽으로 굿을 하는 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첫 축일이 다가올 때까지 그 곳에서 5~7일 정도의 기간 동안 굿하며 놀았던 것이 옛 영등굿의 모습이었다. 이 영등당에는 영등대왕이 외눈박이 거인으로부터 어부들을 구한다는 본풀이(신화)가 채록되기도 하였다. 영등굿은 1950년대 말까지 이어지다가 당시 미신타파 세태와 한림읍 일대 천주교의 영향으로 중단되었다. 다만 최근 한림읍 한수리에서 옛 영등굿을 복원하여 다시 굿을 시작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제주역사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를 번역하여 출간하고 있다. 매년 연차별로 《승정원일기》에 실린 제주기사를 모두 수집하여 한문 원문, 한글 번역 및 주석까지 보충해 왕대별 역주서를 발간하였다. 서적 출간은 물론 그 내용을 제주학 아카이브에 탑재하여 전자 문서로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 첫 성과물로 《승정원일기》 효종대(1649~1659) 제주기사를 낸 데 이어, 2018년에 현종대(1659~1674) 제주기사, 2019년에 숙종대(1674~1720) 제주기사를 차례로 출간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는 《승정원일기》 경종대(1720~1724) 제주기사와 영조대(1724~1776) 제주기사를 역주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승정원일기》제주기사 역주 작업은 제주학 연구 및 역주 사업에 많은 성과를 낸 전공자 4인을 비상임 연구원으로 위촉하고 역할 분담을 하여 추진하였다. 2019년부터는 역주위원들의 번역 기사에 대한 교정, 교열을 위해 교열위원 2인이 추가 투입되어 현재 총 6인의 역주, 교열위원들이 이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승정원일기 개요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관청이다. 승정원에서는 왕에게 올리는 모든 문서와 왕이 신민에게 내리는 모든 문서를 기록으로 남겼다. 뿐만 아니라 왕과 신하 간에 이루어지는 정책 토론 및 심의 결정과 경연 등의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는데, 이를 날짜별로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승정원일기》이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초기부터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임진왜란 당시 경복궁이 불타면서 200여 년간의 기록이 모두 소실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32년간의 일기 역시 1624년(인조 2)에 있었던 ‘이괄의 난’ 때 대부분 유실되어 현재는 1623년(인조 1) 3월부터 1910년(순종 4) 8월까지 288년간의 기록이 남아 있다.

《승정원일기》는 무엇보다 매일의 기록이라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일기를 통해 하루의 정치, 한 달의 정치, 일 년의 정치 흐름을 당시 상황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왕의 동정을 비롯하여 왕정 체제하에서 국정 운영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정치의 주요 현안이 되는 자료나 중앙이나 지방

에서 올린 상소문의 원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여 1차 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승정원일기》는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1999년 4월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9월에는 유네스코(UNESCO)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총 3,245책에 2억4천250만자가 기록된 단일 기록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편년체 역사 기록물이다. 888책, 5천400만자의 《조선왕조실록》에 비해서도 무려 4배나 되는 분량이다.

《승정원일기》의 원본은 활자로 인쇄된 것이 아니라 초서(草書)로 직접 손으로 써서 작성된 것이어서 해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지난 1961년부터 1977년까지 원본의 초서를 해서(정자체)로 고치고 구두점을 달아 영인본 144책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이 영인본의 한자를 전산 입력하기 시작해 2015년 12월에 승정원일기 전 내용을 DB화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1994년부터 《승정원일기》에 대한 한글 번역 작업에 들어가 2030년대 완역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그 방대한 분량 때문에 번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는 인조(1623~1649), 고종(1864~1907), 순종(1907~1910) 때의 일기가 완역되어 있다. 그리고 효종 즉위년(1649) 5월(13일~30일)과 영조 때의 일부 기간(즉위년 9월~13년 8월)이 번역되어 일반에 제공되고 있다. 이리하여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및 한국고전번역원 등의 홈페이지에서는 《승정원일기》한문 원문 전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인조, 고종, 순종대의 전 시기 및 효종, 영조 때의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한글로 번역된 내용까지 접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 사업의 현황과 전망

일찍부터 제주에서도 《승정원일기》에 대한 사료적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하여 관련 사업을 펼쳐왔었다. 먼저 관 주도로 제주도(청)에서는 지난 2001년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제주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2권(상·하권)의 영인본을 출간하였다. 그러나 이 두 권은 영인된 한문 원문이 너무 작게 되어 있고, 희미할 뿐 아니라 연도별 편차 구분도 정리되지 않아 전문적인 학자도 독해하기가 어려웠

다. 하물며 번역 없이 영인된 한문 원문만 제공된 책이어서 일반인은 그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효종대의 제주 관련 기사 발췌 건수가 83건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현재 동시기 제주 기사는 총 147건(동일 날짜의 기사 중 주제가 다른 내용을 별도의 기사로 계산하면 총 158건)으로 조사되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탈락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민간 주도로 도서출판 제주문화(경신인쇄사)에서 2012년 《승정원일기》중 제주기사(제주문화총서 58~78) 전질 21권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승정원일기》원문 중 1623년(인조 1) 3월부터 1825년(순조 25) 12월까지 기간 중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과 ‘추자(楸子)’의 네 검색어로 발췌한 모든 원문을 수록하고 있다. 학계 및 관계의 지원 없이 오로지 출판사 편집부만의 힘으로 검색과 편집을 도맡아 21권의 전질을 발간하여 제주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다만 번역 없이 한문 원문만 제공하였기에 역시 일반인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자료이다.

2016년부터 제주학연구센터는 《승정원일기》제주기사의 번역 편찬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먼저 번역을 위한 역주 저본은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의 ‘원문 탈초본’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승정원일기》‘원문 탈초본’에서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추자(楸子), 탐라(耽羅)’의 5개 주제어로 제주기사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그 결과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는 총 16,394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마지막 순종을 제외한 인조에서 고종까지의 기사만 하더라도 16,351건에 달했다. 이는 동시기 《조선왕조실록》의 제주기사 총 1,638건의 10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이 사실을 도표화한 것이 다음의 [표 1]이다.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를 왕대별로 살펴보면 총 12명의 왕 중 6명의 왕대에서 1,000건이 넘는 기사가 확인된다. 다수 기사 순으로 살펴보면 정조(4,747), 영조(3,951), 고종(1,797), 순조(1,775), 숙종(1,132), 현종(1,052)의 순이다. 이 중 영조, 정조 때의 기사가 8,698건으로 절반이 넘으며, 영정조와 순조 때를 합하면 10,473

[표 1]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의 제주기사 현황

검색어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계
승정원일기(인조~순종)	8,775	1,537	3,542	1,987	553	16,394
조선왕조실록(인조~고종)	1,096	154	204	83	101	1,638

건으로 전체 기사의 3분의 2에 달한다. 또 ‘제주’를 비롯한 5개 주제어의 기사는 제주(8,775), 대정(3,542), 추자(1,987), 정의(1,537), 탐라(553)의 순으로 수집되었다. 특징은 ‘제주’가 절반이 넘는 다수의 기사가 수록되었으며, ‘추자도’에 대한 기사가 ‘정의현’의 기사보다 많다는 점이다. 또한 대정현의 기사가 정의현보다 두 배 이상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차후 연구가 이루어지면 밝혀지겠지만 유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이상 조선후기 전 시기에 걸친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 역주는 향후 제주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한다. 특히 제주에 파견된 목민관(목사, 판관, 현감 등)들의 제수 및 교체 등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마정, 진상 등의 경제 분야 역시 그 내용과 물품에 대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재해와 진흙 및 납속과 면천 등의 사회상 부문은 당시 제주의 실정을 속속들이 알려주고 있을 뿐 아니

라 당시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이 확인된다. 제주에서 시행되는 과거와 그 급제자들이 서울에 올라 최종 과거에 응시하기까지 구체적 정황 역시 《승정원일기》제주기사를 통해 보다 세밀히 살펴볼 수 있다.

향후 제주학연구센터는 영정조 이후 순조, 현종, 철종 시대에 이르기까지 왕대별로 지속적인 《승정원일기》제주기사 역주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승정원일기》의 제주기사는 《조선왕조실록》보다 10배 전후의 많은 사실이 담겨 있고, 그동안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도 세밀히 기록되어 전한다. 이를 통해 제주 역사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 부분 궁금증이 해소되면서 당대 제주 사회의 면모가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대별 지속적인 역주 작업이 마무리되면 제주 역사문화 연구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리라 판단된다. 더 나아가 본 역주 사업은 역사문화 뿐 아니라 제주의 인문 자연 전 분야에 걸쳐 심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것이다. **제주바다누리**

[표 2] 《승정원일기》왕대별 제주기사

구분	제주	정의	대정	추자	탐라	계
인조	302	20	26	2	3	353
효종	139	167	13	1	5	174
현종	213	29^1)	104	4	1	351(1)
숙종	877	116(1)	109	1	29	1,132(1)
경종	104	19	158	3	4	288
영조	2,090	432(2)	940	148	341	3,951(2)
정조	1,908	390(1)	1,691	631	127	4,747(1)
순조	1,183	125(1)	139	305	23	1,775(1)
현종	321	171(1)	204	354	2	1,052(1)
철종	458	88	47	104	2	699
고종	1,122	118	107	434	16	1,797
순종	34	5	4			43
은대조례	5					5
은대편고	19	(1)				19(1)
계	8,775	1529(8)	3,542	1,987	553	16,386(8)

*()는 다른 지역 통계에 잡힌 중복 기사 수를 말함

신축교안 120주년, 화해와 상생의 모범 사례

김선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박광수 감독, 영화 이재수의 난 포스터(1999)

120년 전 그날, 제주에서는

1901년, 제주에서 신축교안(辛丑教案)이 벌어졌다. 구한말 서세동점의 시기에 제주도민과 천주교회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재수로 대표되는 장두(狀頭)들은 처형당했고, 수백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죽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났다.

당시 제주도민들은 국가의 세폐(稅弊)에 괴로워했다. 더 많이 거둬들이고자 파견된 사람이 강봉현이었다. 그는 천주교 신자였고, 천주교에 입교한 도민들을 활용해 세금을 거둬들였다. 원래 지주보다 마름이 더 나쁘게 느껴지는 법이다. 도민들은 천주교 신자들을 자신들의 고향을 짜내는 봉건왕조의 앞잡이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천주교회는 도민들이 형성해온 토착 문화를 미신으로 취급하면서 무리하게 선교활동을 펼쳤다. 신목(神木)을 자르고, 신당을 파괴했다. 도민들을 유교로 교화시키려 했던 제주목사 이형상(재임 1702~1703년)이 도내에 있던 신당을 모두 불태웠지만, 결국 실패했던 일이었다. 또한 선교사들은 한불조약(1886)을 계기로 얻게 된 치외법권적 지위를 선교활동에 적극 활용했다. 때로는 무리하게 신자들을 보호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신자를 괴롭힌 도민을 사사로이 끌고 와 형벌을 가한 적도 있었다. 결국 그것

은 도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천주교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는 대단했다. 천주교 신자들을 “법국 새끼(Pep-Kouk-Saiki)”(1901년 9월 28일자 라크루 신부 서한)라고 부를 정도였다.

물론 천주교회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784년에 설립된 한국천주교회는 100여 년 동안 조선왕조와 사회로부터 받아오던 박해를 딛고 적극적으로 선교활동에 나서던 상황이었다. 그동안 형성된 박해 트라우마는 선교사들로 하여금 교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게 만들었다. 더욱이 국가에 의한 무차별적인 박해, 즉 신자들을 향한 집단학살은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문명화의 사명(Mission Civilisatrice)’을 강화시켰다. ‘문명화의 사명’이란, 서구 제국주의 국가를 문명(Civilization), 이외의 지역을 야만(Barbarism)으로 구분 짓고, 문명화된 서구 제국주의 국가가 야만적인 비서구 국가를 문명화시켜야 하는 소명을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

당시 선교사들은 그리스도교를 통해 조선사회를 문명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선교활동에 나서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며 교세를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18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을 배척하고, 공격해왔다. 1901년에 벌어진 신축교안도 그들에겐 비슷하게 느껴졌다. 저 멀리 대정 주민들이 제주 읍성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눈뜨고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신축교안 이후 천주교회의 활동

이렇듯 다른 처지 속에서 신축교안은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이재수의 난, 제주교난, 제주민란, 신축항쟁’ 등 다양한 이름들에 녹아들었다. 신축교안은 프랑스 군함과 조선정부 군인들이 입도하면서 종결됐지만, 천주교회와 제주도민 간에 응어리진 감정은 좀처럼 풀릴 길이 없었다. 물론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천주교회는 도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펼쳐왔다. 신축교안 직후, 라크루 신부(구마실, Marcel lacrouts)가 세운 신성여자학교(현 신성여자중·고등학교)는 비신자 도민들에게

도 인기가 있을 정도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타케 신부(엠탉기, Émile Joseph Taquet)는 왕벚나무를 학계에 알려 제주가 왕벚나무의 자생지임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제주에 처음으로 들여온 온주밀감은 오늘날 제주 감귤 산업의 토대가 되었다. 1940년대에 활동하던 선교사들은 도민들에게 2차 세계대전의 전황을 몰래 알려주며, 조국 독립의 희망을 전하다 일제에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1950년대에 입도한 맥그린치 신부(임피제, Patrick James McGlinchey)는 평생을 가난한 제주도민들을 위해 일했다.

역사적 화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그 결실일까? 2003년 11월에 제주도민과 천주교회는 역사적인 선언문을 채택하고, 서로 화해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화해와 기쁨을 위한 미래선언문”

우리는 102년 전 이 땅 제주에서 일어난 일을 제주 공동체 모두의 경험과 해결과제로 받아들이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관용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자 한다.

천주교측은 과거 교회가 제국주의 열강의 동양강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의 시기에 선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과거의 잘못을 사과한다. 제주도민을 대표한 〈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는 봉건왕조의 압제와 외세의 침탈에 맞서 분연히 항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천주교인과 무고한 인명 살상의 비극을 초래한 데 대하여 사과한다.

우리는 향후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과거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제주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자 적극 노력한다.

우리는 향후 제주 공동체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구상하고 추진하며, 각자의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서로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관을 충분히 존중해 시행하도록 한다.

2003. 11. 7.

천주교 제주교구 총대리 신부 허승조

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 대표 김영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제주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제주학 공동 정책 세미나’ 지상 중계



제주항쟁기념사업회와 천주교 제주교구 간에 이루어진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 선언(2003년)

이렇듯 제주도민과 천주교회는 서로의 입장에 서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일을 반성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2021년 신축교안 120주년을 맞았다. 도민사회와 천주교회는 120년 전의 아픔을 돌아보며, 제주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행사들을 준비했다. 도민사회는 ‘신축항쟁 12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 조형물 및 표석 제작, 학술 토론회, 장두 추모굿 등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주교 제주교구 또한 지난 5월 28일에 ‘신축교안 1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신축교안을 반성하고, 천주교회와 제주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29일에는 신축교안의 상징터인 황사평(민군이 제주읍성으로 진격하기 전에 주둔했던 곳. 지금은 당시 죽임을 당한 천주교 신자들이 묻혀있음)과 하는 본당 터(신축교안이 시작된 대정지역 관할 성당 터)에 ‘화해의 탑’을 제막하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신축화해의 길’을 순례하는 행사도 가졌다.

도민과 천주교회의 화해,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

신축교안을 둘러싼 제주도민과 천주교회의 행보는 아직 풀리지 않은 과거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제주도민과 천주교회가 보여준 것은 자신들만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양측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인정할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한 결단이 화해와 상생의 물꼬를 트게 만들었다. 그리고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할 것을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이러한 역지사지의 마음, 소통하려는 자세, 말보다는 행동,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이 응어리진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임을 제주도민과 천주교회가 모범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것은 아직 제주사회가 풀지 못한 4·3사건과 전국에 산재한 과거사 문제들에 함의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제주바다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2021년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와 공동으로 ‘제주학 공동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가 제주 공동체에 불러온 변화들을 돌아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제주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수의 인원들만 참석할 수 있었지만, 언론사 ‘제주의 소리’가 인터넷 중계로 영상을 송출하여 많은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었다. 이해를 돕고자 정책세미나 발표와 토론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편집자 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제주지역 공동체 현실과 과제

고승한(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제주 공동체라는 지리적·사회적 공간에서 공통된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고자 한다. 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하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고민하려고 한다.

제주 공동체의 변화

과거 제주사회의 공동체 문화는 역사·문화 공동체(언어, 주거, 의례, 신앙, 해녀 등), 가족·생활 공동체(문중, 켄당문화, 수놓음 정신 등), 마을 공동체(마을 규약, 마을 행사 등)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요인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은 많이 변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의 지배 속에서 공동체 의식·연대가 약화되고 있다. 제주어가 소멸되고 있고, 제주의 관혼상제, 성묘, 문중 행사 등이 재편되고 있으며, 관광 산업·지역 개발의 활성화로 지역 공동체가 변화되고 있다. 핵가족,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공동체가 변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제주지역 인구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으로 주거 형태가 변화되어 이웃 관계가 약화되고 있고, 도시화의 확산으로 개인 중심의 생활이 주류가 되고 있다. 지역 중심 공동체에서 다양한 사회조직들로 공동체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는 새로운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제주의 대표적인 수놓음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검질(김)매기. 우리 어머니들은 힘든 노동을 검질 매는 소리인 <사대소리>로 달랬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주 공동체는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 숙박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전세버스 등 관련 업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고용 분야도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사회적 관계도 비대면 생활, 돌봄 문제들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공동체 문화 복원을 위한 과제

그렇다면 공동체 문화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선 제주 정신문화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주어 보존과 계승, 수놓음 정신·삼무정신의 실천, 이웃과의 나눔 및 배려 문화의 확산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 및 생활 양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공익적 이익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를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발전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가족 유형을 존중하고, 소득·주거·건강·문화 등 복지 지원을 강화하며,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가족 공동체 문제 해결과 돌봄, 가사노동, 육아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

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야 한다. 또한 다양한 갈등 조정 및 관리를 고도화시켜야 한다. 공공갈등 예방 관리 체제를 내실화하고, 사회협약 및 갈등관리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의 다양성 및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을 공동체 내 자원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 리더십을 양성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의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제주 공동체 문화 복원을 위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보아야 한다. 제주 공동체 문화 복원에 대한 제도를 재정비하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 마을 및 지역사회·주민 중심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자료가 없다. 이를 위해 제주 공동체 문화에 대한 성찰과 연구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주 공동체 문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주 공동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사업 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탁월함은 훌륭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일들을 아주 훌륭하게 하는 것이다. 제주 공동체 문화 복원의 길도 그러하리라 생각된다. **제주바둑리**

코로나19와 제주지역 가족의 변화

손태주(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에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사회규범을 촉발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피난처인 가족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로 인해 가족 갈등 및 가정 폭력이 증가했다. 서비스업계 종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이주자 집단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등 사회 구조적으로 취약한 계층, 세대, 젠더에 따른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다양한 영역에서 그 영향이 드러나고 있지만, 일시적 불편함으로 치환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족의 문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심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지역 가족의 변화 양상

코로나19 국민위험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시점인 지난해 1월보다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늘어나고 있다. 가족 생활 시간 역시 부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것은 가족 갈등의 증가로 이어졌다. 2020년 제주도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났고, 가족 내 아동 학대 건수가 더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건수가 더욱 늘어났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자녀 돌봄 공백이 있다. 코로나 이후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많이 나타났는데, 조부모와 친척 등 돌봄 공백의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자녀 혼자만 집에 방치해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돌봄의 어려움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외벌이보다는 맞벌이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2020년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제주지역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은 코로나19 이후 결혼·임신·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매우 높았다. 현재 느끼는 걱정이나 두려움·우울의 정도 역시 코로나19 이후 증가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 생활 시간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가사 노동 시간·가사 노동 부담 등에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 폭력의 경우, 부부사이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 맞벌이보다는 비 맞벌이 부부에서 증가하고 있었고, 자녀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막내 자녀 연



령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 이후 가정에서 돌봄 방법이 변화되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혼자 두고 출근하는 모습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 아이 자녀를 둔 가정 일 경우, 여성이 독박 육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 지도를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가정이 돌봄 기능과 더불어 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족·돌봄 정책 과제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정책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마음 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민 다수에게 '코로나 블루'가 나타나고 있기에,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 연대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언택트 대신 온택트

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SNS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 맺기 활성화 캠페인 등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마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노인, 장애인, 취약 계층을 위한 돌봄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 마을 단위의 복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 팬데믹은 국경 폐쇄, 지역 봉쇄, 사회적 혐오를 강화시키고 있다. 재난 대책 전반에 대해 젠더적 시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는 개인의 행복, 독립성, 자율성을 강조해왔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불러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누구인지, 재난과 교차되어 불평등을 야기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제주바투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주민 · 다문화 · 외국인공동체

황석규(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원장)



주제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주민, 다문화, 외국인공동체 등의 주제어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 인종차별이나 폭동과 같은 사회적 갈등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 코로나19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성찰적 요청주의가 필요한 시기

한편 요즘 유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는 요청주의이다. 칸트(I. Kant)에게서 유래된 이 단어는 개인에게 부

여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 서로 협의하여 규범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집단의 결정이 개인의 자유를 막는다. 이것이 이율배반이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가 법을 통해 개입한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바로 감시와 억제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새로운 권위주의와 감시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권위적 요청주의가 아닌 새로운 성찰적 요청주의를 고민해야 한다. 일률적인 요청이 아닌 쌍방향적인 요청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이 서로 합의하고 상생하며 나가는 길을 찾아나갈 때 성찰적 요청주의가 나타나



게 되는 것이다. 감시와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집단에 의한 소수집단의 혐오주의가 나타난다. 제주의 현실은 어떠한가. 1970~80년대에는 전라도·경상도 사람들을 혐오했다. 현재는 국제결혼 여성, 외국인근로자, 특히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혐오한다.

외국인, 우리가 원해서 불러온 이들

제주 등록 외국인 현황을 보면, 2012년에 8,736명에서 2019년에는 25,668명으로 늘었다. 제주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한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22,943명으로 줄었다. 외국인의 3분의 2가 제주시, 3분의 1이 서귀포시에 살고 있다. 국제결혼은 매년 300~400건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것은 전국 3위에 해당된다. 2020년에는 결혼 건수가 줄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 건수 감소로 자녀 출산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경 폐쇄로 인해 본국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경조사 참석이 어려워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그 수가 줄고 있다. 코로나19로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계절 근로자 수가 줄어들며 농가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자진 출국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일손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것이다.

다문화를 이야기 할 때는 항상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사회는 외국인들을 원해서 데려오고 있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은 과연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물음표다.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미등록 외국인 고용을 유연하게 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숙련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가족동반 불허제도를 폐지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숙박시설이 낙후하여, 코로나 격리시설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고용센터를 통해 이들에 대한 중간전달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주바투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공동체의 통합과 발전 방향 모색

좌 장 한영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토론자 민주홍(제주대), 정이은숙(제주여민회), 엄미경(제주대), 한용길(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김선필(제주학연구센터, 김
미진 토론문 대독)

구체화된 정책을 만드는 토론을 기대하며

한영진 코로나 이후, 이런 모임에 함께 모이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생활공동체,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세미나가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고승한 석좌연구위원님의 기조 강연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제주 공동체의 문화 복원에 관한 내용이었다. 제주 전통문화의 계승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유념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손태주 연구위원님이 발표하신 가족 돌봄 이슈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제주사회에 중요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황석규 원장님의 발표를 통해 우리사회가 잊고 있었던 공동체 구성원들에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세 분의 발표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 시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토론해 나가고자 한다.

낮선 이들과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공포를 넘어

김선필 코로나는 제주 사회 곳곳에 어려움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맞서 제주도민들은 서로 돕는 제주 DNA를 되살리고 있다. 이점은 코로나가 제주사회에 불러온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식구’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과의 연대 의식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입도하는 외지인을 잠재적 코로나 전파자로 보면서 멀리하는 모습, 코로나에 걸린 이웃의 신상을 바로 그 이웃의 이웃들이 공공연하게 공유하며 자기 이웃을 멀리하는 모습은 도민 사회가 이방인의 범주를 점점 더 확대시키고 있으며, 자신들의 공동체를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예멘 난민 사태 속에 전조가 있었다. 낮선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칠 것만 같은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그 안에 녹아 있었던 것이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낮선 이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코로나를 계기로 제주 사회 곳곳에서 일상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더군다나 2000년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유입되면서, 제주사회는 더 이상 혈연·지연·학연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폐쇄성이 강화된다면, 앞으로 제주사회에는 다양한 갈등이 생겨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그어놓은 경계를 유연하게 하고, 낮선 이들에 대한 편견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서로가 서로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켜 갈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캠페인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는 가까운 이들과의 결속을 강화시키지만, 역으로 개인의 삶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 손태주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듯, 그것은 가족 내 불화로 이미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가 불러온 새로운 환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과 지인들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지만, 이미 고착화된 관계를 변화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점에서 국가는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게 가족 관계, 공동체 관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촉촉한 가족·공동체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

민주홍 가족단위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가족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재생산, 돌봄 등 여러 기능들이 오늘날 사회화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코로나가 불러온 타격이 바로 돌봄, 교육 기능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다. 가족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타격이 양분화되었다는 점이다. 손태주 박사님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맞벌이 부부·미취학 아동을 가진 가족, 경제적으로 힘든 가족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설문에도 안잡히는 사람들이 있다. 아주 취약한 계층이다. 설문에 따르면, 폭력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신고 건수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잘 잘라서 누구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할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인데,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두 배 정도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이 모든 것에서 발견되는 누적적 불이익과 이익을 고려하여 조금 더 촉촉한 정책적인 제언들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는 가족 단위를 벗어난 공동체 단위에 대한 이야기이다.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을 때, 제주사회가 걱정했던 것은 관광객 감소 문제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 가운데 확진자가 생기자 우리끼리 똘똘 뭉쳤다. 그 모습은 제주 공동체가 이익집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 우리가 가진 가치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 이익집단의 이미지를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사회에서 다문화를 말할 때, 외국인 공

동체 가운데서도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교육도시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외국인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들을 포함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존 정책들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엄미경 코로나19로 우리사회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부터 있었던 사회문제, 고질적인 지역문제 즉, 산업구조적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미비가 드러났다. 공동체 문화 복원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려스러움이 발견된다. 교류가 활발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지역·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형되는 역동적인 실천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의 공동체, 원래의 공동체가 강조될수록 국가나 지역사회가 단일성을 강조할수록 국가나 지역 내에 다양한 차이는 억압될 수 있다. 그래서 다양성의 시대에 어떤 공동체를 복원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지역 내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 이를 통해 이미 다양한 집단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를 상상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위기 장기화 속에서 제주의 수놓음이 작동했는지, 어떻게 작동했는지, 작동되지 않았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를 통해 다양한 공동체 사업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렇다면 그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수행된 노력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노동과 돌봄, 주거, 사회 보장,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들이 일어났다. 특히 학교와 보육시설, 복지관 등이 일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워지면서, 가정이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전부터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수놓음 육아나눔터조성사업, 모다들영 돌봄사업,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해왔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 다룬디 배움학교, 즉, ‘마을과 학교가 아이를 키운다’ 이런 부분들을 2015년부터 본격 운영해왔다. 제주도내 농어촌학교 80% 이상이 다룬디 배움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스템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 이러한 분석 하에서 향후 코로나19 이후 시대 정책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오늘 거론되고 있는 공동체 복원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 복원 자체가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동체 복원은 지역 공간에서 주민들의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공동체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호혜적 인간 관계를 만들어나갈 때 가능하다. 이것은 문화·경제·자치 공동체 등 여러 영역이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실행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은 필수적이다. 그것은 단기적 처방을 넘어서야 한다. 코로나 이후 사회로의 중장기적인 이행 전략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시장·기업·가정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불평등한 사회구조 전환을 위한 해결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까지 설계되어야 한다. 혐오나 차별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장과 개발 담론에 매몰된 한국·제주사회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이를 재고하는 계기, 다시금 복지국가와 보편적 지역복지, 먹거리, 복지 확대를

모색하는 계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환경, 에너지, 먹거리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고 재구조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족 돌봄, 모두가 절실하게 느끼는가?

정이은숙 토론을 준비하며 가졌던 핵심 질문은 ‘우리가 복원하고 회복해야하는 공동체 자체에 대한 평가,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나쁜 화살촉은 무엇인가?’ 전방위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회복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제주 사회에 이미 들어차 있었던 나쁜 화살촉들을 뽑아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인종, 계급, 성별에 따른 불평등은 재난 상황에서 더욱 증폭된다는 연구들이 많다. 실제 돌봄 노동 증가, 가정 폭력 증가, 실직·강제해고의 증가 등이 많아지고 있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실태조사는 이를 잘 확인해주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정책 제안들도 다양하게 촛촛하게 제시했다. 이전에 모자랐던 부분들은 메꾸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책 대안들이 나왔다. 질문이 생긴다. 향후 이런 재난이 자주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보완적인 정책들로 그 재난 상황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다. 이것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 세계에서 다 같이 갖는 질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다. 돌봄의 문제가 가족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편향되게 말려진 돌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서 돌봐야 되는 것으로 각성하고, 통감하게 만들 수 있는가? 다음은 공동체 회복, 가족 회복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혈연과 결혼, 입양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만 가족 공동체를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가족정책만 유효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봄은 혈연, 결혼, 입양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가와 제주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돌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해주어야 하는가?

돌봄의 상호 필요성에 대해 각성은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절실함은 처한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돌봄은 비대면이 될 수 없는 대면 노동이다. 공공적 개입의 부재가 있을 때 여성들이 돌봄을 메우고 있는 것



제주학 공동 정책 세미나 발표자와 토론자들

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의 문제는 성별화되어 있다. 《창작과 비평》에 나온 내용인데, 성별로 편향되어 있는 말겨져 있는 돌봄, 그것이 바로 독화살이다. 공동체의 복원은 이전 공동체에 대한 평가, 이 돌봄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인 가치를 재구성해나가야 되는 그런 복원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는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혈연, 결혼, 입양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들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생활동반자,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교육, 이민 정책 부서·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한용길 황석규 박사님께서 현재 외국인 주민들이 겪고 있

는 부당한 부분들에 구체적으로 잘 언급해주셨다. 제주가 섬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다른 이민자들의 생활이 있는 것 같다. 외국인 주민들 같은 경우 타 지역으로 나가기 어려운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감금되어지고 고립되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작년에 고립감 때문에 자살하신 분도 있다. 외국인 주민들은 다중적·초국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다. 이분들이 제주 공동체 사회에 함께 섞이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역으로 우리가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아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몇 십년 동안 자국 문화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우리 문화 속에 섞여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이다. 나 역시도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다. 따라서 어릴 적부터 교육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지 않으면, 외국인 주민에 대



제주학 공동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였다.

한 인식 개선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외국인에 대한 이민 정책 부서가 도청에 있어야 한다. 14개 부서에 다 나눠져 있다. 예멘 난민 사태가 터졌을 때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이민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제주도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경기도 안산에는 있다. 우리는 더 해야 한다. 섬이라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무비자 지역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행정에서 와서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지금 1만 3천명 정도 불법체류자가 있다. 섬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갈 수가 없다. 이들을 단속해버리면 일손을 구할 수가 없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단기적으로 합법화해서 인력풀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제주도에 제발 이민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같은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비자 지역이고, 예멘 난민 사태도 있었듯 굉장히 다양한 신이민 현상

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정책이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이 마련된다면 보다 풍성하고 글로벌한 제주형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순자 공동체라는 개념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논의들은 불평등한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아쉬웠다. 서로 나누는 긍정적인 것도 있을 텐데 말이다.

김미진 손태주 선생님께 여쭙고 싶다. 젠더적 시각이 반영된 대책들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은 무엇인지 듣고 싶다. 황석규 선생님께 여쭙고 싶다. 미등록 외국인들을 유연하게 허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

고은실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우리 상임위(보건복지안전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임위에 와서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해보지 않았는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제주 공동체 문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되길 고승한 여러 토론자 분들의 진정성 있는 제안들 감사하다. 제주 공동체 문제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고, 특정 문제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정책으로는 5월에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수립 · 완료가 된다. 제주의 미래 공동체의 모습을 그 계획 안에 녹여내고 있는가? 앞으로 10년 제주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세우는 최고의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형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도민적 합의를 그려놓고, 전통문화 속에서 폐기, 수정, 보완, 개선, 수용해야 할 것들을 정리를 해야 한다. 마을, 주민, 지역 사회 중심이든 다양한 접근 전략을 짜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맞게 행정에서 정책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세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으로

손태주 젠더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저출산’이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더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용어인가, 그래서 ‘저출생’이라고 한다. 저출산은 여자를 아이를 낳는 도구라고 바라보는 용어인 것이다. 돌봄이라는 용어도 인식 개선,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돌봄이라는 제도가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일가정 양립이라는 제도적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2014년도에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공보육체계가 만들어져서 거의 60% 이상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2017년부터 초등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온종일 돌봄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제주의 경우 17%만 공적으로 돌봄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지역이 나눠서, 상생 · 연대 ·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즉, 연대 · 협력 ·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결혼이라는 법적인 테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 확산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현실적인 정책 마련 필요

황석규 도덕적이지 말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자기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은지 모른다. 의지가 있어도 고용주가 고용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것이 해결되어야 한다. 한편 외국인 공동체, 전문직, 국제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노무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우리 도민들이 요청한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 그리고 나는 발표문에서 공동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공동체는 도덕적이기 때문이다. 절대 이익적이 아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다 도덕적이다. 현실 비판적인 이야기가 없다. 쉽게 이야기 해서, ‘참 가정되어야 한다?’ 아니다. 갈등 많다. 저출산 당연한 것이다. ‘일가정 양립해야 한다.’ 아니다.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돌봄이다. 이제는 가족에서 돌봄이 안 된다. 지자체나 국가에서 태어나자마자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제주도가 100만 인구가 되어야 경제가 부흥한다. 아니다. 생활 환경이 엉망이 되고 있다. 오히려 베네룩스 3국, 모나코,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지만 더 낫다. 공동체에는 도덕성이 아니라, 창의성이 필요하다. 피에르 부르디외의 구별짓기를 보면, 상류층 사람들은 물을 안 지킨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도덕적 인간은 능동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 안에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대와 소통,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

한영진 오늘 이 토론회를 명확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고민의 지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는 오늘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를 바꿔버렸다. 현명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연대와 소통, 이러한 자리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이야기 했던 것들을 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정책화시켜 실제 추진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세미나를 마치고 하겠다. **제주바다리**

큰굿보다 영험하다는 보목마을 정포제

글·사진 조정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전근대 동유라시아와 제주’ 학술대회

멘 난민을 기점으로 그동안 논의되었던 이주와 정주, 혐오와 관용, 감시와 처벌, 차이와 사이, 주체와 타자, 근대와 탈근대 등에 대한 담론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 연구를 강화하고 향후 정부의 난민 정책 수립에 학문적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다. 이러한 연구 과제 선정에는 탐라문화연구원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학제

적 연구의 결집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원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역거점대학의 연구기관으로서 그 위상에 맞는 의제를 발의하고 학술네트워크의 중심 구축을 전제로 도내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있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도내 연구기관의 협력이 탐라문화연구원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힘이 되었다.

향후 탐라문화연구원은 도내 연구 기관의 제주학 연구자들과 함께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탐라국의 위상과 실체를 확인하는 활동과 함께 발전국가론, 유교자본주의론, 아시아적 가치, 동아시아 공동체 등의 여러 동아시아 제주학의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주력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연구를 이끌어가는 데 부여된 소임을 다할 것이다. **제주바둑리**



등재 학술지 《탐라문화》



보목마을 포제 초헌례

음력 정월 대보름 즈음인 지난 2월 27일에 서귀포시 송산동 보목마을 포제 답사를 다녀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한된 방식이었지만 온 정성을 다해 포제를 올리는 주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심방의 고향과 본풀이로 유명하다. 이와 더불어 마을공동체의 유교식 제의로서 ‘포제’ 역시 내륙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마을제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 포제에 대한 자료조사나 연구 성과는 미미한 편이

다. 이번 글에서는 보목마을 포제의 준비 과정과 연행 양상을 성글게나마 소개하고, 포제가 지니는 의의와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포제(酺祭)는 이사제(里社祭)라고도 하는데, 마을공동체에서 거행하는 유교식의 독축고사형(讀祝告祀型) 제의이다. 본래 포제는 황충(蝗蟲, 메뚜기과에 속하는 해충)이 창궐할 때 지내던 제사였으며, 중앙에서 각 주현에 이르기까지 지내도록 《국조오



보목마을 포제 홀기

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포제라는 이름이 대부분 사라졌음에도 제주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마을에서 포제를 지내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포제는 그 내용 면에서 육지 대부분의 마을에서 지내오고 있는 동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 중심의 당굿에는 심방이라는 전문적 사제자가 결합하여 연행하는 반면, 남성 중심의 포제는 유교적 전통에 의거한 홀기(笏記)에 따라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당굿과 포제는 대체로 정월에 거행되는데, 동시에 또는 하루 정도의 차이를 두고 연행되면서 상반된 성격의 공동체 제의가 한 마을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당굿은 마을별로 독특한 성격을 지니는 신당에서 가무오신적인 형태로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연행되는 반면, 포제는 유교적 시공간으로 조성된 포제단에서 열두 명, 또는 열여섯 명의 제관이 모여 정숙한 분위기에서 연행된다.

포제의 역사와 변천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된 자료는 없지만, 현용준 교수에 따르면, 본래 제주도의 마을공동체 신앙은 남녀가 함께 연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조선시대 유교문화가 백성의 생활 속에 정착하게 되면서 향교의 석전제(釋奠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포제가 형성되고, 그 결과 남성은 포제, 여성은 당굿이라는 형식이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남성의 포제와 여성의 당굿이 중층적으로 연행되는 제주도 마을공동체의 제의는 다른 지역

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신앙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목마을의 사례를 통해 제주도 포제의 실제적인 전승양상을 살펴보자. 보목마을에서는 포제를 ‘정포제(正醺祭)’라고 한다. 향교나 서원에서 정일(丁日)에 거행하는 제사와 같이, 특별히 정성을 들여서 정통 유교 방식으로 포제를 지낸다는 의미라고 한다. 정포제의 제관은 연말이나 정초 마을회의에서 선정하는데, 마을 내 위상과 재력, 금기나 부정과 관련한 생기복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주민들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제관에 선정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으며, 특히 초헌관에 선정되는 것은 가문의 자랑일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

보목마을에서는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포제 제관들은 일주일 이상 함께 합숙하며 재계를 하였고, 온 정성을 들여 포제를 준비하고 실행하였다. 여러 번의 예행 연습을 통해 한 치의 실수도 없도록 준비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3일 재계로 바뀌었고, 현재는 2일 재계로 실행하고 있다. 입제일이 다가오면 선정된 제관들은 마을회관과 포제단 주변을 청소하고 금줄을 친다. 문서로 전해 내려오는 물목에 따라 제수를 구입하고 제기, 제복, 축문 등을 준비한다. 포제를 지내기 하루 전날 예행 연행을 하고 포제 당일에도 예행 연행을 한다.

위와 같은 포제 준비와 예행 연행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주민들은 저마다 정성을 준비해 와서 제관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마을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포제

에 동참한다. 남성들로만 구성된 제관들이 포제를 지내기는 하지만 마을주민 모두가 제비를 내고 동참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정포제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마을 조직 대표나 주변 기관, 단체 등 제한된 인사들만 다녀가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포제 당일 밤 10시 경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포제단으로 출발한다. 희생(생돼지)을 비롯한 제물을 트럭에 싣고 나머지 제관들은 승용차를 이용해 포제단으로 간다. 포제단에 도착해서는 희생으로 사용하는 통돼지를 비롯한 제물을 진설하고 제장을 정화하기 위해 짚불을 들고 제장 둘레를 한 바퀴 돈다.

이후 제물을 진설한 후에는 ‘창홀’의 홀기에 따라 포제를 실행한다. 자정이 가까운 야심한 밤이지만 예행연습 덕분인지 일사불란하게 흐트러짐 없이 제를 진행하였다. 문서에 따라 전폐례(奠幣禮)-초헌례(初獻禮)-독축(讀祝)-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철변두(撤邊豆)-망료(望燎) 순서로 제가 올려졌고, 제관들의 기념 촬영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모든 제를 지내고 다시 마을회관으로 돌아온 제관들은 포제에 사용된 제수를 요리하여 함께 음복을 나눈다. 본래는 포제 다음날 아침 마을주민들이 모두 회관에 와서 수고한 제관들에게 인사하고 음복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 전체 음복은 하지 않고 몇몇 집에 제례 음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를 마지막으로 1박 2일 간의 포제 일정이 끝나고 제관들은 서로를 치하하며 올 한해 마을의 안녕과 풍요가 깃들 것이라 믿으며 각 가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보목마을 포제 현장에서 살펴본 바로, 포제와 당굿이 일면 경쟁의 성격을 띠는 것 같았다.

“정포제 입제하는 게 큰굿 한 번 하는 것보다 낫다!”



보목마을 포제 상차림

남성들로 구성된 보목마을 포제 제관의 위 말처럼 정포제를 지내는 남성들은 여성 중심으로 연행되는 심방의 굿만큼이나 포제의 영험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심방의 큰굿보다 정포제에 제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욱 영험이 크다는 담론을 만들고 확산시킴으로써 포제로 상징되는 남성 중심 유교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의 신앙형태가 남성 중심의 포제와 여성 중심의 굿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경쟁적이면서 중층적으로 마을제사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 보면, 여성 중심의 굿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가변성이 높은 반면, 남성 중심의 포제는 폐쇄적이고 고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제주도 지역의 마을공동체 신앙으로서 당굿과 포제는 통합된 형태라기보다는 별개의 신앙체계라 할 수 있다. 제의를 준비하고 연행하는 집단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두 신앙체계가 마을 내에서 담당하는 직능 역시 차이를 보인다. 포제가 마을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풍요를 포괄적으로 기원하는 반면, 당굿은 마을 내 안녕을 기원하는 한편, 가가호호의 화복을 비는 측면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모쪼록 보목마을과 각 가정, 그리고 제주와 한반도, 세계 전역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면서 모두들 안녕하고 풍요롭기를 기원해본다. **제주바둑리**

제주어, 궁금해?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궁금해? 궁금하면 ‘네이*’에게 물어봐!”

요즘은 궁금하면 검색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국어사전과 백과사전 전집을 구비하고 있었다. 궁금하면 사전의 힘을 빌리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도 없고 사전에도 없는 지식은 어떻게 할까? 제주어는 인터넷이나 사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영역의 지식에 속한다. 물론 제주어 사전이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단어가 수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인터넷에 검색해서는 안 나오고, 딱히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 ‘제주어종합상담실’이다.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상호, 상품명, 방송 등에서 제주어 사용이 늘어났고 사람들의 궁금증도 커졌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19년 3월 26일 ‘제주어종합상담실’이 문을 열었다. “제주어, 모르는 거 낫건 들어봅서양!”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시작하여 만 2년이 지나고 이제 막 3년차로 접어들었다.

‘제주어종합상담실’은 국립국어원 ‘가나다 전화’의 국어 상담 사례를 제주에 적용하여 제주어에 대한 상담 창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 상담을 위해 1991년부터 가나다 상담 전화(1599-9979)를 개설하였고 누리집의 ‘온라인 가나다’와 카카오톡 ‘우리말 365’를 운영하고 있다. 국어 상담을 전담하는 ‘국어생활 종합상담실’에는 10여 명의 상담원이 상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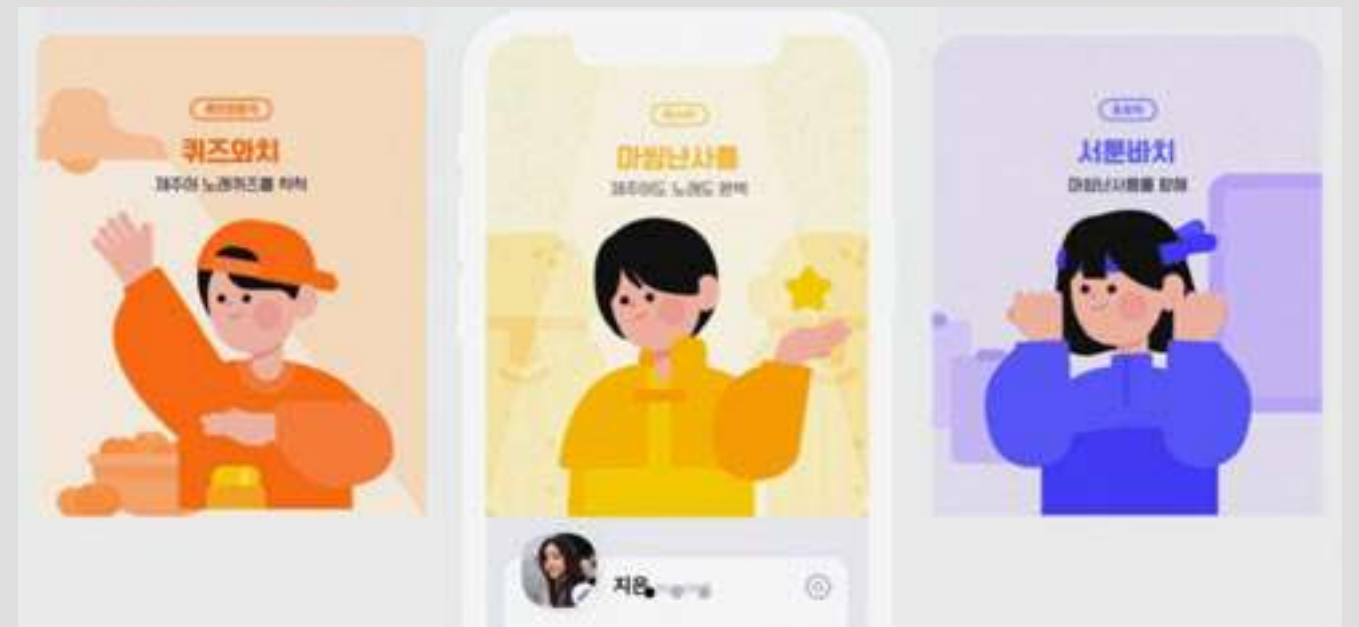
이런 국립국어원의 국어 상담 시스템에 비하면 ‘제주어 종합상담실’은 소박하다. 그나마 1명 있는 전담 상담원도

예산 문제로 10개월도 채 계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어 전공 연구원이 1명 있으나 여타의 다른 제주어 관련 사업과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어종합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제주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다.

제주어종합상담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도외 지역,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까지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10대와 20대의 문의가 많아졌다. 도외 젊은 친구들이나 외국인들의 관심이 반갑기도 하지만 혹시 잘못 이해해서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다.

한번은 서울의 한 사립대학 디자인학과에 다니는 학생이 졸업 작품으로 제주어 노래방 게임을 개발하고 싶으면서 연락해 온 적이 있다. 유행가 가사를 제주어로 바꿔서 퀴즈를 푸는 형식이고 게임 결과를 ‘초보자, 능력자’처럼 판정하고 싶다고 했다. 몇 개의 가요를 제주어로 바꾸고 ‘서툰바치, 노래와치’ 등의 제주어를 알려주었다. 샘플로 만들어 보낸 시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제주어에 신세대 감각이 입혀지면 이렇게 예쁘고 깜찍해질 수도 있구나 싶었다. 또 한번은 베트남 유학생인데 베트남 사람들에게 제주어를 소개해 주고 싶다고 표준어와 어떻게 다른지 알려달라고 했다. 설명해준 내용을 반영하여 베트남어로 동영상 제작하여 보내오기도 했다. 여러 세대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심은 제주어 활용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어종합상담실에 문의해 오는 내용도 다양하다. 표



대학생이 만든 제주어 노래방 게임(위)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만든 제주어 소개 영상(아래)

준어 어휘를 제주어로 바꾸거나 제주어 어휘를 표준어로 바꿔달라는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어원이나 문법 사항과 같은 깊이 있는 질문도 있다.

한 공공기관에서는 제주어 이모티콘을 제작하려고 한 다면서 제주어 표기에 대한 상담을 해온 적이 있다. ‘걱정 마, 보고싶어, 마음대로 하세요’ 등을 제주어로 바꿔서 썼는데 표기와 표현이 적절한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상담 후 이모티콘이 제작되었고 무료 제공 이벤트가 진행되

었다. 한정된 수량만 내려받을 수 있어 아쉽게 받아보지 못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뿌듯해 하곤 했다. ○○ 홍보관에서는 전시 해설을 제주어로 방송하고 싶다면서 시나리오를 제주어로 바꿔달라고 하기도 했다.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제주어로 방송하는 전시 해설을 들으면 제주만의 독특함과 정겨움에 가슴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연말에는 제주어로 일력을 만든다면, 하루에 한 장씩 찢는 옛날식 달력에 제

제주 유배 문화의 가치 탐색

글·사진 김진철(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제주어종합상담실 개소



세계 토착어의 해 기념 '이동 제주어 종합상담실' 운영(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앞)

주어 문장을 쓰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다. 여기저기서 수집한 제주어 문장인 듯한데 한두 문장도 아니고 365개는 너무 많다고 거절했으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며칠을 고생해서 교정을 보았다. 나중에 달력이 나왔다면 택배로 보내왔고 지금도 벽에다 걸어두고 매일 한 장씩 찢고 있다. 이 달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에 한 문장씩 배운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오른다.

이렇게 일 년 동안 상담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매년 연말에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2019년에는 321건의 상담 내용을 정리하여 《빌레의 표준어는 무신거우파(‘빌레(너력바위)’의 표준어는 무엇입니까)》라는 책을 발간했다. 또 2020년에는 《몰마농고장은 수선화마씨계(‘몰마농고장’은 (제주어로) 수선화에요)》라는 책자에 402건의 상담 내용을 정리하여 단어, 문장, 뜻풀이, 표기 등의

항목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주어 상담’이라는 말이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흔히 ‘상담’은 심리치료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상담자가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내담자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 공감하면 내담자가 스스로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말이다. 그러나 상담이 심리학의 전용만은 아니다. 대상에 따라서 학업 상담·진로 상담·법률 상담·세무 상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주어 상담은 제주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찍이 공자도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이 진실로 아는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제주어를 다 알 수 없다. 제주어종합상담실이 라고 해서 모든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고민하고 논의하여 진실로 아는 것에 이르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제주어가 궁금하거나, 제주어로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제주어종합상담실이다.

제주어종합상담실은 제주어 상담 전용 <들어봄서>(1811-0515) 전화와 전자우편(jeju0515@hanmail.net) 등을 통해 앞으로도 제주어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고 제주어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제주어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제주어의 대중화와 제주어의 전승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바둑리**



2019 제주어 상담 자료집

2020 제주어 상담 자료집



유배인의 배향처였던 굴림서원터

제주도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배지로 이용되면서 수백 명에 달하는 유배인들이 다녀갔다. 그 중에는 왕이었던 광해군을 비롯해 김정희, 송시열처럼 당대를 호령하던 사대부들도 있었고, 정난주, 노씨부인 같은 여성 유배인과 석철, 석견처럼 아직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 유배인들은 낯선 제주에 도착하면서부터 이전의 삶과 단절되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유배지 제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영향을 주고 받았다. 이렇게 유배인과 유배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된 문화를 유배 문화라 한다.

제주도와 유배 문화

유배인들은 제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선 유배

인 중에는 해배가 되어도 돌아가지 않고 제주에 정착한 경우도 있고, 제주 여자와의 사이에서 후손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유배인의 성씨가 제주에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제주에서는 이들을 입도조로 여겨 지금까지 추앙하고 있다. 학문적 교류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김정과 정은, 송시열 세 명의 유배인이 배향되었던 굴림서원은 유배인과의 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유배인들이 남긴 한시에는 유배 시절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김정희의 명작 <세한도>가 탄생한 것도 제주 유배 시기이다. 이 밖에 유배인들은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제주문화를 기록으로 남겼다. 김정의 《제주풍토록》, 이건의 《제주풍토기》, 김윤식의 《속음청사》 등은 과거 제주의 면모들을

위미2리 해녀들의 신앙 의례

글·사진 고은솔(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들이다. 이처럼 유배인과의 교류는 유배인에게도, 제주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가 되었다. 따라서 유배 문화는 제주역사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유배 문화의 재조명

과거 유배지로 이용되었던 지역들은 유배인과 관련된 유적들을 복원하거나 유물들을 전시하는 기념관들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약용이 유배되었던 전남 강진은 ‘다산초당’과 ‘사의재’를 복원하고, ‘다산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정약용의 유배시절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경남 남해는 《구운몽》으로 유명한 김만중이 유배했던 곳이라는 점을 살려 ‘남해유배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배지였던 노도를 문학의 섬으로 조성하였다. 경북 포항은 정약용, 송시열의 유배지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영월은 비운의 왕 단종의 유배지로서 매년 ‘단종문화제’를 지역의 대표 축제로 개최하고 있다. 국외에서도 나폴레옹의 유배지 세인트 헬레나섬, 소동파의 유배지 하이난섬, 넬슨 만데라의 유배지 로벤섬 등은 유배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억압의 장소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현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유배 문화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형벌의 역사에서 벗어나 흥미로운 역사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 콘텐츠로 만나는 제주 유배 문화

제주 유배 문화의 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관심은 201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우선 추사유배길, 제주성안유배길 등 유배인들이 거주했던 적거지 및 관련 장소들을 연결한 테마길이 조성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다. 유배인 조정철과 제주 여인 홍윤애의 러브 스토리는 2002년 선보인 창작오페라 「백록담」 이후로 창작무용극 「춤, 홍랑 - 사랑으로 잠들다」, 연극 「섬에서 사랑을 찾다」 등 다양한 작품들로 무대에 올랐다. 제주에 유배된 유일한 왕 광해군의 삶을 소재로 한 창작음악극 「빛의 바다로 가다」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정난주의 삶을 소재로 한 소설 《난주》는 4·3평화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배 문화 관련 축제들도 다양하게

개최되었다. 대정에 유배되었던 김정희를 테마로 하는 ‘대정고을 추사문화예술제’는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19년 유배인이 드나들었던 관문인 화북포구에서는 ‘화북유배문화제’가 새롭게 개최되기도 했다. 유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 유배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유배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전시회도 열렸다.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낮선 곳으로의 여정, 제주 유배인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광해, 제주에 유배 오다’,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제주에 흘러온 가르침, 유배’라는 타이틀로 유배 문화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또한 ‘추사 유배 음식 상품 전시회’, ‘제주 유배 밥상 전시회’, ‘스토리가 있는 광해 밥상’의 행사들은 유배인과 관련된 음식들을 상품화하여 산업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였다. 실제 광해군 관련 음식 상품들은 원도심의 음식점과 연계하여 판매까지 이어졌다. 이외에 유배인, 유배지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소개하는 ‘유배 영화 특별전’, 유배인 음악가의 작품을 소개한 ‘음악과 유배 문화’, 유배인의 꽃을 소재로 한 한시를 그림과 꽃차와 함께 전시한 ‘유배 한시 꽃차 전시회’ 등은 유배 문화를 다양한 분야와 접목시켜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제주 유배 문화의 잠재력

오늘날 사람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의 변화에 휩쓸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유배인들에게 유배의 시간이 스스로에게 몰입하는 시간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제주에서 한 달 살기, 일 년 살기 등은 오늘날 자발적으로 떠나는 유배의 행위이다. 이처럼 멈춤의 미학, 회복의 가치는 유배 문화의 현재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유배는 역사 속의 형벌이지만 유배의 속성은 재해석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크투어리즘의 성격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유배 문화는 제주의 지역색을 보여줄 수 있는 테마이자 국내외로 확장 가능한 테마로서 콘텐츠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유배지로서 제주는 유배 문화의 가치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 유배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새로운 제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바두리**

“아고 무시거 헐 거 이서? 또 오지맙서.” 정말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을에 찾아가는 게 실례는 아닌지. 2020년 5월 처음으로 해녀 문화 조사를 나서며 많은 걱정이 앞섰다. 그땐 올레 돌담 하나 지나는 게 천리만리처럼 느껴졌었다. 조사를 다닌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다보니 나도 모르게 정이 많이 들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 옆집엔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위미2리 ○○삼촌은 어느 골목 코너에 사시는데...’ 하고 마을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이번 사업은 마을 기록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해녀 문화 조사 사업으로, 해녀들의 삶의 터전인 해안 마을에서의 삶 그리고 물질이 이루어지는 바당밭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는 일이다. 제주 해녀는 오랜 세월 국내외를 오가며 가계를 돕는 한편 제주의 수출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 또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제주 해녀들은 거친 바다에서 물질을 하면서 농·축산업도 함께 일궈왔다. 현대로 올수록 그 역할은 축소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제주 해녀들은 오랫동안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켜오는 핵심 멤버들이었다. 특히 위미2리의 신앙 의례 조사를 하며 이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 그 정성과 규모에 매우 놀라웠다. 운이 좋게도 조사를 다니며 마을과 어촌계에서 중요하게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의례 ① 성계 시작하는 날 지드림 ② 마을제 ③ 수신제 3가지를 직접 조사할 수 있었고, ④ 영등제는 위미2리 어촌계장님의 도움을 받아 사진과 영상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 해녀들의 삶이 녹아있는 이 의례들을 간

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성계 시작하는 날



성계 시작하는 날(울랑개)

‘성계 시작하는 날’은 한 해에 성계를 잡는 첫 날을 의미하며, “성계 잘 잡게 해줍서” 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날이다. 성계를 잡지 않았던 시절에는 미역·갈래곰보 시작하는 날 ‘지드림’을 했다고 한다. 성계 시작하는 날(6월 15일)이면 ○○은 새벽 4~5시부터 ‘도지’를 싸고 해녀탈



수신제(상코지 불턱)



마을제(마매기당)



영등굿(해녀탈의장, 사진 김기봉 위미2리 어촌계장)

의장이 있는 올랑개에 나와 ‘지드림’을 했다. ‘도지’는 기원할 때 바다에 바치는 제물로, 위미2리에서는 메(밥)·옥돔·굴·사과·배·동전 3개·생쌀 세 줌을 넣는다. 지를 싸는 천은 히마지천·삼색 물색·종이(창호지) 세 가지를 차례대로 겹쳐 놓는다. 그 위에 준비한 재료들을 차곡차곡 놓고, 천을 감싼 뒤, 실타래로 묶는다. 정성들여 준비한 도지는 올랑개 앞 바다에 감주·생쌀·남은 제물들과 함께 바쳐진다.

마을제(음력 정월 초이튿날)

위미2리의 본당은 ‘마매기당’이다. 이 ‘마매기당’에서는 매년 정월 초이튿날 마을제를 크게 지낸다. 위미 1·2·3리에서 모두 모여 제를 지낸다. 상단굴인 이씨 집안에서 먼저 와서 절을 올리고, 그 뒤를 이어 각 마을 이장과 단체장이 절을 올린다. 원래 한씨 남자 심방이 굿을 하였으나, 현재는 남자 심방이 없어, 여자 심방이 두루마기를 벽에 걸어두고 남성 복장으로 굿을 하고 있다.

올해는 양력 2월 13일에 제를 지냈다. 조사를 위해 부지런히 제주시에서 위미2리로 달려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굿을 간략하게 하여 이미 굿이 끝나고 제비쌀 점을 보고 있었다. ‘제비’는 쌀을 집어 던져서 손에 잡힌 쌀알의 수효로 점을 치는 일이다.

제일 아침에 주민들은 ‘마매기당’에 올 때 정성들여 만들고 푸짐하게 싣 제물을 ‘질구덕’ 가득 가져온다. 특히 ‘등지거리’가 사람 앓은 키만큼 쌓여있는 것은 위미2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다. ‘등지거리’는 하얀 천을 바느질해서 만든 기다란 주머니 안에 생쌀 두 바가지를 넣는다. 그리고 주머니 양쪽에 한 바가지씩 나누고, 주머니 가운데를 접어 실타래로 묶는데, 이때 실타래 사이에만 원짜리 지폐를 접어놓는다. 이 ‘등지거리’는 한 사람의 몫으로, 만약 가족 4명의 점을 치고 복을 빌려면 4개의 ‘등지거리’를 만들어온다. ‘등지거리’와 제물을 준비하고 새벽부터 무거운 ‘질구덕’을 짊어지고 당이 있는 언덕을 올랐을 주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그 정성과 마음에 감탄할 뿐이다.

수신제(음력 정월 택일)

마을제가 열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위미2리 어촌계에서는 수신제를 지낸다. 올해는 양력 2월 21일 위미2리 상코지 불턱에서 오후 5시부터 시작하여 2시간가량 해가 질 때까지 진행되었다.

수신제는 토신제와 유사하여 유교식 제의를 따른다. 제를 진행하는 제관을 모시고, 어촌계장, 위미2리 해녀회장·부회장, 위미3리 해녀회장과 해녀회 임원 4명이 제관으로 참여하였다.

어촌계 사무실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상코지 불턱으로 이동해 오는데, 상을 차리는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엄숙하게 진행이 되었다. 우리에게 조사를 하고 촬영을 하더라도 절대 상 앞쪽으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제상은 동쪽을 향해 차려졌는데, 제상에는 메, 떡, 전복·소라, 생닭, 생쇠고기, 옥돔, 과일 3가지, 대추, 미나리, 꽃감, 밤이 올라간다.

제가 다 끝나고나서는 제 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며, ‘돌레떡’과 옥돔, 전복, 소라를 아낌없이 나눠주셨다.

돌레떡 위에 옥돔을 얹어 먹는 굿 음식을 생전 처음 먹어봤는데, 쫄쫄한 식감에 짭조름한 옥돔이 함께 씹히는 것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제를 주관하신 해녀회장님이 남은 소라 하나를 마저 챙겨주시면서 남김없이 다 먹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자리를 떠나라고 하셨다. 제를 마치기까지 오롯이 안녕을 기원하는 데에 온 마음을 다하는 제관들의 엄숙한 마음가짐과 정성을 체험할 수 있었다.

영등굿(음력 이월 열사흘)

영등굿은 영등신을 위하는 날로, 영등신에게 해녀와 어부들에게 해상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날이다. 올해 위미2리에서는 해녀탈의장에서 양력으로 3월 25일에 열렸다. 코로나19로 직접 조사를 못하고, 어촌계장님이 보내준 자료사진을 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제주바투리**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현황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 운영 사업

제주학 아카이브 클라우드 서버 이전 및 이용자 환경 개선

제주학 아카이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유명 포털사 이트와 연계된 클라우드 서버로 자료를 이전하고 더욱 편의성이 강화된 이용자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동영상의 경우에는 제주학연구센터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링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좀 더 대중적인 아카이브로서 위상과 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며, 모바일 환경도 대폭 개선함으로써 좀더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는 제주학 아카이브를 구현하고자 한다.

제2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 · 영상 공개 수집… ‘제주의 관혼상제’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올해 3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의 관혼상제’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수집하고 있다. 수집된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촬영 시기나 가치에 따라 저작권료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수집에서 선정된 사진과 동영상은 제주학 아카이브 콘텐츠로 구축하여 “제주의 관혼상제” 누리집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보완 조사와 추가 자료 확보를 통해 특별전시회와 자료집 발간도 계획하고 있다.

- ※ 공모 일정
- 3월~8월 홍보 및 공개수집
- 9월~11월 심사 및 시상
- 11월~12월 공개수집 자료 아카이브 업로드 및 콘텐츠화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 개설… 9월 개강 10주 과정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현재까지 전문가 중심의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과 시민의 활용이라는 구도 하에 운영되었지만 앞으로는 시민과 함께 만들고 향유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시민 대상의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을 통해 시민이 직접 생산하여 함께 구축해나가는 제주학 아카이브를 구현할 예정이다.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은 9월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 ※ 일정
- 7월 홍보 및 모집
- 9월 개강(10주 과정)

제주학 지원 사업

제주학 총서 및 번역서 출판비 지원 사업



제주학 총서 및 번역서 출판비 지원 사업은 제주학 진흥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는 총서 1건 《신화로 살펴보는 제주문명사》와 번역서 1건 《아다치를 통해 본 재일코리안 형성사》이다. 《신화로 살펴보는 제주문명사》는 제주 설화와 무가를 바탕으로 제주문명사를 풀이하고 있다. 《아다치를 통해 본 재일코리안 형성사》는 재일코리안이 타국에서 살아가면서 지키고자 했던 정체성과 제주에 대한 기억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번역서로, 재일코리안의 삶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학 연구비 지원 사업



제주학 연구비 지원 사업은 제주학 연구 활성화와 전문 인력의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자유주제는 제주학을 연구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과제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주제는 제주학을 연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과제당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는 자유주제 2건 ‘제주 판옥(板屋)에 관한 연구’, ‘도서성(insularity)의 관점으로 본 제주도의 정치 발전과 지역 개발’, 기획주제 1건 ‘근현대 제주 사회의 변동과 제주인의 삶’ 이다. ‘제주 판옥(板屋)에 관한 연구’는 동국여지승람 제주목 제영편의 제주 ‘판옥’ 기록을 대상으로 해석학적 ·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여 제주건축사의 새로운 유형인 ‘판옥’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도서성(insularity)의 관점으로 본 제주도의 정치 발전과 지역 개발’은 우리나라 주요 도서개발정책과 제주도의 정치 · 경제 발전 상황을 조사하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 이전과 이후 제주도 발전의 내외부적인 요인을 섬 연구의 관점으로 분석하게 된다. ‘근현대 제주 사회의 변동과 제주인의 삶’은 근현대사 분야에서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한 학제간 융합적 연구를 통하여 제주 지역민의 정체성 탐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멸실 위기 민속문화 연구 사업

제주 민속문화 조사 사업 착수

멸실위기에 처한 제주의 민속문화 중 가장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조사 연구를 진행한다. 각계 전문가를 공동 연구원으로 초빙하고 제주 인문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제와 자료를 발굴하여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 2년 간은 ‘제주의 마을제’를 주제로 각 마을의 포제, 리사제, 당굿, 풍어제 등 모든 공동체신앙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서 생산된 자료를 기반으로 학술세미나, 특별전시회, 디지털 콘텐츠화 등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 일정
- 4월~8월 문헌 및 현장 조사
- 9월~10월 보고서 원고 집필
- 10월 학술세미나 개최 및 특별전시회 개최
- 11월~12월 제주학 아카이브 업로드

제주어 연구 사업

제주시 동부 지역 세시풍속 관련 제주어 구술 조사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월별로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제주의 세시풍속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 사업은 4개년 사업으로 제주시 동쪽, 제주시 서쪽, 서귀포시 동쪽, 서귀포시 서쪽의 네 개 지역을 연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1년은 제주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 삼양동, 조천읍, 구좌읍 각 지역의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80대 이상 토박이를 만나 제주어로 구술하는 세시풍속을 심도 있게 조사할 계획이다. 4월 현재 제주시 삼양2동과 조천읍 대흘리 현장 조사를 마쳤

고 조천읍 신흥리와 구좌읍 김녕리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된 제주어 자료는 전사하여 구술 자료로 구축하는 한편 마을별 주요 세시 풍속 일람을 작성하여 연말에 <제주어로 풀어 쓴 제주의 세시풍속 1(동부 지역)>을 발간할 예정이다.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제주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았을까?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으로 제주의 전통 옷과 관련한 어휘와 민속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통적인 옷을 만들었던 장인들을 만나 제주의 전통 옷과 관련된 제주어를 채록하고 도구와 옷을 촬영하는 등 조사 작

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서귀포시 하원동 강만옥(1932년생) 할머니 조사 장면으로, 방 한쪽에는 재봉틀과 바느질 도구가 놓여 있고 아흔의 나이에도 지인의 부탁으로 수의를 만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 사업... 지자체 홍보물 제주어 감수도 진행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을 통해 제주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상담자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상담 사례로 제주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홍보물에 대한 제주어 감수 건이 특이하다. 서

귀포 문화도시센터에서 의뢰한 일력에 들어갈 365개의 제주어 문구에 대한 감수를 진행했고,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보관실에서 '외국인 생활 정보' 홍보 내용에 들어가는 제주어에 대한 상담을 하기도 했다.

'제9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진행... 9월 30일까지 시·산문 등



제주학연구센터는 인터넷신문 제이누리과 공동 주최로 제주어를 전승하고 보전하기 위해 제9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는 일반 부문과 학생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제주어로 글쓰기와 말하기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제주어 글쓰기는 시·산문·제주어 대역 등의 형식(A4 3매 이내)으로, 제주어 말하기는 5분 이내로 제작한 동영상(UCC) 형식으로 응

모할 수 있다. 문의 726-9154
※ 공모 일정
공모 기간: 5월 1일~9월 30일
시상식: 11월 6일(예정)

2021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 《(가칭)제주어대사전》 원고 집필 진행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2024년 발간을 목표로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차년도인 2021년에는 12월까지 6,000개의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 수정, 용례 추가 등

의 작업을 진행, 총 13,000개의 표제어 집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지조사를 통한 새어휘 집필과 제주어 구술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역사 편찬 사업

1907년 발간 《제주도현황일반(濟州道現況一般)》 자료 번역 및 해제 일본 소재 신문 제주기사 번역

1907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제주도현황일반(濟州島現況一般)》은 가미야[神谷] 재무관이 제주를 조사한 후 1906년 6월 보고한 내용을 엮은 자료이다. 역사, 지리, 행정조직, 도민

들의 생활상태 등 제주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담고 있는데, 제주학연구센터는 이 자료의 해제와 번역을 통해 100여년 전 타자가 바라본 제주의 모습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 영조대(영조 19~35년) 번역

제주학연구센터는 조선시대 1급 관찬사료인 《승정원일기》 영조대(영조 19~35년) 제주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번역 및 주역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역사 원전 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제주역사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문서 해제 발간… 조선 김해김씨 문중 고문서 조사·연구

제주학연구센터는 구한말 제주 지식이었던 해은(海隱) 김희정(金羲正, 1844~1916) 집안에서 다량의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희정은 제주 조천 출신으로 면암 최익현이 유배 왔을 때 면암을 따라 배웠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준호구, 명문, 소지 등의 고문서를 비롯하여 자작 시문집,

일기류, 서간, 만장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이 잘 남아 있다. 김희정 집안의 고문서 및 고서 조사·연구를 통해 조선 시대 제주지역 지식인층간의 교류 양상, 당시 제주 유림계 동향 등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조선후기 제주사회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주 고전에서 배우는 제주사 강좌 · 제주 고전 바로 읽기 강좌 6월부터 11월까지 총 24회 제주 고전 강독회 운영

제주학연구센터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제주 고전 강독회'를 운영한다. 2018년부터 진행된 '제주고전 강독회'는 탐라의 역사문화 관련 한문 원전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제주 고전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올해는 '제주 고전에서 배우는 제주사 강좌'와 '제주 고전 바로 읽기 강좌' 총 2개 강좌가 진행되는데, 제주사 이해를 돕기 위해 《남사록》, 《증보 탐라지》, 《파한록》 등 다양한 원전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해녀 문화 조사 사업

한림읍 귀덕리 대상 해녀 어업과 문화 등 조사

제주학연구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해녀 문화 조사 사업은 2020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마을기록화의 하나로 연구가 진행되며, 도내 해안 마을 1곳을 선정하여 해녀 문화와 해녀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의 인문 환경 등

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를 대상으로 하며, 5월 예비조사를 통해 마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6월부터 현장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해녀와 해안 마을 주민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귀덕2리 개뿔이 장면

제주학 교류 · 정책 · 교육 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제주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제주학 공동 정책 세미나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다양한 위기 속에서 제주공동체가 나가

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지역 공동체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고승한 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기조강연이 있었으며, “코로나19와 제주지역 가족의 변화”(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주민 · 다문화 · 외국인 공동체’(황석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서 한영진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 연구위원), 민주홍(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 염미경(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정이은숙(제주여민회 정책위원장), 한용길(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제주학 네트워크 확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JIBS제주방송과 업무 협약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2021년 3월 4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를 계기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함께 제주학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제주 신화 학교’를 수행하는 등 양질의 제주학 연구 성과

를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 한편 5월 10일에는 JIBS제주방송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제주학연구센터는 JIBS제주방송과 함께 제주학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콘텐츠로 제작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업무 협약



JIBS제주방송과 업무 협약

제주가 알고 싶다면, ‘제주 신화 학교’로 오세요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함께 제주 신화를 도민들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제주 신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주 신화 학교는 일반신 본풀이를 다루고 있으며, 시즌제로 운영하여 신화 학교 시즌 1은 4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시즌 2는 6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12회가 운영되고 있다. 강정식(제주학연구소장), 강소전(제주대 강사), 이현정(제주대 강사), 류진옥(제주학연구소 연구원) 선생 등 제주 신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연구자들이 참

여하여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강의는 제주 신화 가운데 일반신 본풀이를 다루는데, 천지왕 본풀이, 할망 본풀이, 마누라 본풀이, 초공 본풀이, 이공 본풀이, 삼공 본풀이, 차사 본풀이, 소만이 본풀이(멧감 본풀이), 지장 본풀이, 세경 본풀이, 문전 본풀이, 칠성 본풀이 등 총 12개 본풀이를 상세하게 살펴본다.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강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제주 신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회 제주학대회…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주학 주간’ 선포도

2021년 10월에 제5회 제주학대회가 개최된다. 제주학대회는 제주학연구센터가 매년 주최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제주학 축제이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20년부터 10월 둘째 주를 제주학 주간으로 선포하고, 학술대회·제주학특강·탐방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제주학 연구 성과의 공유와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총 5일 간을 제주학 주간으로 선포한다. 특히 제주학연구센터 개소 10주년을

을 기념하여,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제주학 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김아연 한국학호남진흥원 기획연구부장, 박경환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진흥본부장을 비롯한 도내외 한국학·지역학·제주학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주학이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제주학 동향

제주어연구소, 기관지 《제주어》 4호 발간

제주어연구소(이사장 강영봉)에서는 기관지 《제주어》 4호를 펴냈다. 제주어 4호는 ▲사진으로 읽는 제주·제주어 ▲특집 ▲제주어 이야기 등이 수록됐다. 이번호 특집은 2020년 연암 현평효 선생 탄생 100돌 기념 전국학술회의 ‘연암 현평효를 그리다-그의 삶과 학문’으로 엮었다.

김지홍 교수, 《제주 방언의 복합 구문》 발간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김지홍 교수는 《제주 방언의 복합 구문-접속문과 내포문》(경진출판)을 발간했다. 이 책은 제주 방언에서 복합 구문의 주요 범주인 접속문과 내포문 관련 형태소와 그 의미 자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주도문화관광해설사협회, 제주어 해설집 발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회장 김태수)가 제주어 해설집 《제주, 제주어로 곤다》를 펴냈다. 이번 해설집은 ‘제주의 역사, 문화, 민속’ 등을 제주어로 소개하여 제주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강문철 작곡가, 제주어 창작합창곡집 발간

작곡가 강문철은 《돌담에도 트멍이 이서사》란 제목으로 첫 제주어 창작합창곡집 두 권을 묶어 냈다. 이번 합창곡집에는 제주어로 된 ‘신 오돌또기 산조’(전래가사), ‘뚜렷’(김종두 시), 까마귀야 까마귀야(전래가사) 등이 수록되었다.

도내 문학단체 소소리쟁이, 《제주신화에서 제주어를 찾다》 발간

문학단체 소소리쟁이(회장 김순란)는 《제주신화에서 제주어를 찾다》를 펴냈다. 이번 문집에는 회원들의 신당 기행을 통한 창작 기행문과 심방의 입말을 풀어 제주어, 영어, 표준어로 쓴 내용이 실려 있다.

강영수 작가, 수필집 《암창개 온 어머니》 발간

강영수 작가는 새 수필집 ‘암창개 온 어머니’(도서출판 미라클)를 발간했다. 이 책은 1부 어머니, 2부 해녀, 3부 세월로 구성돼 있으며 부록으로 제주어 관련 자료가 실려 있다.

남원중학교 《서귀포 남원에서 제주, 제주어를 꽃피우다》 발간

남원중학교(교장 강창우)는 1월 7일 ‘제주어 탐구반’ 학생들이 《서귀포 남원에서 제주, 제주어를 꽃피우다》라는 책자를 엮었다. 발간된 책은 중학교 1학년들이 제주어로 표현한 ‘시, 제주의 설화와 전통문화’ 등이 담겨 있다.

《제주해녀문화 총서 II(성산·표선)》 발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는 2019년 《제주해녀문화총서 I (조천·구좌)》 발간에 이어 2021년에는 《제주해녀문화 총서 II(성산·표선)》 발간을 추진한다. 보고서는 해녀들이 조업을 했던 다양한 바다 속 지형과 지물에 대한 명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내 읍·면·동 단위로 제주도 전역을 조사·기록하여 총 7권의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제주어 영상물(애니메이션) 6편 제작 및 보급

제주도교육청은 ‘2020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애니메이션)’을 개발하고 보급하였다. 제주 이해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갈옷 멩글기 대작전’, ‘나비박사, 석주명’ 외 4편을 표준어·제주어·영어 자막 버전으로 개발하였다.

(사)제주어보전회,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와 업무협약

(사)제주어보전회(이사장 김정민)는 지난 1월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본부장 양창용)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제주어 교육과정 운영’을 협업하여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공유·지원, 전문인력 교류, 관련 교육 세미나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라도서관, 제주어 이야기 어른신 과정 개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관장 현희철)은 ‘제주어 이야기 어른신 과정’을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어른신들이 제주어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제주학생문화원, 제주어 뮤지컬 오디션 운영

제주학생문화원(원장 강혜순)은 4월 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주말체험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주어 뮤지컬’을 운영한다. 선발된 초·중학생은 공동체의식과 제주의 문화를 이해시키는 취지로 창작 작품을 제주어와 표준어로 배우게 된다.

제주미래교육연구원, 2021 ‘제주 놀레로 훈디 놀게’ 직무연수 운영

제주미래교육원(원장 김상진)은 초등 교사 대상으로 제주어 동요를 통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과목은 ‘제주 놀레로 훈디 놀게, 제주 문화와 제주어, 제주어 동요’ 등 모두 3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제주의 정체성과 제주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해녀박물관, 어린이 해녀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도내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4~6월, 9~11월 기간에 해녀 문화 전승·보전 및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어린이 해녀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제주일노래 상설 공연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는 6월부터 8월까지 ‘제주일노래 상설 공연’을 하고 있다. 공연은 제주시 향사당(6월 5일~8월 21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과 서귀포시 소암기념관(7월 4일~8월 22일,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서 펼쳐지고 있다. ‘제주일노래’는 제주인들이 밭과 바다에서 일하며 반복적으로 부르던 노동요이다.

제주특별자치도, 2021 인권작품 아이디어 공모전

제주도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오는 5월 3일부터 28일까지 ‘인권작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 공모전은 ‘우리가 꿈꾸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주제로 △유튜브 영상 ▲제주어 슬로건 ▲창작글(동시) ▲포스터로 나누어 공모했다.

“굶다로 푸는 제주 섬의 역사와 난민”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에서는 지난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굶다로 푸는 제주 섬의 역사와 난민”을 주제로 한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지원:한국연구재단)을 수행하며, 관련 심포지엄과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계의 사유, 이질과 동질’과 ‘제주 섬-타자 인식과 혐오 양상’을 주제로 총 5개의 강연과, 6개의 발표 및 토론이 치러졌다.

한국환경사회학회·제주대학교 공동자원연구센터, 2021년도 학술대회 개최

한국환경사회학회와 제주대학교 공동자원연구센터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환경 갈등의 현황과 환경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주 지역의 환경 갈등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다루는 세션이 운영되어 제주지역 환경 문제와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사)제주학회, 52차 전국학술대회 ‘바람이 만드는 제주’ 개최

(사)제주학회는 6월 11일 ‘바람이 만드는 제주’를 주제로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주 바람과 인문사회’와 ‘제주 바람과 자연생물’, ‘제주 바람과 에너지 이용’ 등 제주 바람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이 한 자리에서 펼쳐졌다.



제9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

제주어 공모전

JRI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이누리가 ‘제9회 아름다운 제주 말·글 찾기-제주어 공모전’을 엽니다. 아름다운 제주 말과 글을 찾고 전승시키는 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 내용

- **공모 기간** 2021년 5월 1일 ~ 9월 30일(5개월)
- **공모 대상** 남녀노소 구분없는 전국 단위 공모
- **공모 분야** 학생 부문 / 일반(대학생 포함) 부문
- **공모 형식과 분량**
 - 제주어 글쓰기(시/산문/대역) - A4 3매 이내
 - 제주어 동영상(UCC) - 5분 이내
- **공모 주제** 자유
 - ※ 1인 2개 작품까지만 응모 가능
 - ※ 다른 대회 입상 작품, 본 대회 1~8회까지의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 제외
- **응모 방법** 전국 공모, 인터넷 접수
 - 글쓰기: 공식사이트(<http://jnuri2021.webjejuns.com>)를 통한 응모
 - 동영상: 웹하드(아이디:jnuri2021/비번:jnuri2021^^)에 파일 올리기
- **시상식(예정)**
 - 일시: 2021년 11월 6일(토) 15:00
 - 장소: 김만덕 기념관 강당

시상 내역

부분	구분	인원	상장	상금
대상	대상	1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100만 원 상당 상품권
	최우수상	1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	50만 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	3명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이누리 발행인상	30만 원 상당 상품권
일반 부문	장려상	5명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이누리 발행인상	20만 원 상당 상품권
	최우수상	1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상	50만 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	3명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이누리 발행인상	30만 원 상당 상품권
학생 부문	장려상	5명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이누리 발행인상	20만 원 상당 상품권

문의처

- 제주학연구센터 (☎064-726-9154)
- 인터넷신문 제이누리 (☎064-748-3883)

제2회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 수집

| 기간 | 2021. 3. 30. - 8. 31.

| 주제 | **제주의 관혼상제**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인의 관혼상제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 수집합니다.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포함한 일생의례 등 제주의 역사 속에서 전승되어온
우리 제주인의 관혼상제 관련 자료를 기다립니다.



| 분야 | 사진 부문 / 동영상 부문

- * 제출 자료는 출판 등으로 공개되지 않은 저작권 소유 작품이어야 함
- * 제출 자료에 대한 저작권료는 촬영 시기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함

| 주제 | '제주의 관혼상제' 관련 사진과 동영상

| 분량 | 제한 없음(예산 범위 내에서 저작권료 지급)

| 제출 방법 | 온라인 업로드, 전자우편, 우편, 방문 제출

* 고령 등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자 자택으로 출장 접수도 가능

| 시상식 | 2021년 10월 중

(저작권료와 별도로 시상금 지급함. 대상: 50만원 상품권 등)

| 제출처 | 전자우편 jhcho@jst.re.kr /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제주학연구센터

온라인 업로드 <http://www.jst.re.kr/oaLogin.do>

| 문의처 | 제주학연구센터 064)747-6138